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10:1-18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자유보다 복종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3일	9월 10일
윤원신	김현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아무도 안 들겠지만 오늘도 외칩니다

사람들은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복받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면 실제로는 안되는 길을 가고, 망할 길을 갑니다. 왜 원함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왜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일까요? 그 단서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아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명이 좋은 줄 압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압니다. 복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복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파리 날립니다. 말로는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눈에는 전혀 복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이끈다는 길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교회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말 시상식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은 다 모이셨습니다. 그 중에는 일년내 내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목사님도 계셨고, 여자관계로 구설수에 올랐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상을 받으시더군요. 공로상, 올해의 목회자상, 등을 시상하시더군요. 제 마음이 씁쓸한 것은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 저도 잘 난 것 하나 없으면서 괜히 시샘하는 걸까요? 그럴 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거 아십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혹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넓은 환한 길이라 생각된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줄 인식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피와 눈물로 범범이 되어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 하더라도, 외롭고 또 외롭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줄 아십니까? 이 시대가 점점 편해지고 이 땅에서 사랑받고 복받고 자기만을 위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갑시다 제발... 아무도 안 들겠지만 오늘도 외칩니다.